

상무·한전 올해도 프로팀 킬러

23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월스테이트 2006-2007 V-리그'에서는 남자부의 아마 초청팀 상무와 한국전력(한전)의 활약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와 한전은 지난 시즌 나란히 프로팀을 상대로 3승씩을 수확하며 프로팀 잡는 '저승사자' 면모를 특별히 과시했다. 공정배 감독이 이끄는 한전은 선수들의 평균 키가 가장 작지만 세트 김상기의 현란한 토스를 바탕으로 빠른 공격과 단단한 조직력이 돋보인다. 2005-2006 시즌에서는 3승3패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LIG를 상대로 2승, 대한항공으로부터 1승을 챙겼다.

또 지난 9월 한국배구연맹(KOVO)컵 양산대회에서도 겨울리그 상대전적 7전 전패로 늘었던 상무를 완파하고 프로 4개

오늘 개막 프로배구 남자부 아마 초청팀 참가 작년 프로상대 3승씩 거둬... 아마 돌풍 핵으로

팀과 대결에서도 매 경기 한 세트씩을 빼앗으며 선전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수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력 차질이 불가피한 건 아쉬운 대목.

센터 한대섭과 성동혁, 리베로 강석중 등 세 명이 은퇴와 군 입대로 빠졌고 예초 신인 4명을 뽑으려고 했지만 프로팀들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예상보다 많은 11명을 데려가면서 센터 최귀업(인하대)과 안태영(명지대) 등 2명 밖에 보강하지 못했

다. 최귀업과 안태영은 지난 13일부터 팀 훈련에 합류했지만 당장 실전에 투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183cm의 단신임에도 응수철 탄력을 자랑하는 라이트 정평호와 날카로운 속공 실력을 지닌 센터 이상현은 든든한 버팀목이다.

공정배 감독은 "지난 시즌보다 선수들이 빠졌고 전력 보강이 되지 않았다. 신인들도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 후반에야 투입

할 수 있다. 힘든 경기가 예상되지만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불사조' 상무는 군인 특유의 패기가 강점이지만 전력 보강이 되지 않은 건 아쉽다.

주포인 라이트 주상용이 지난날 초 오른 쪽 발목 수술을 받아 재활 중이고 주축 센터였던 조승묵은 지난 5월 재대 후 삼성화재로 복귀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뛰던 리베로 김주완과 LIG 출신의 세트 손장훈이 가세한 건 다행이다.

최삼환 상무 감독은 "전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져 힘든 행군을 하게 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특유의 정신력을 발휘해 프로팀들의 체력이 떨어지는 중반 이후 승리를 노려보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원위 날렵하게... 22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스노우보드 월드컵 대회전 활강경기에서 일본의 토모카 티케우치가 날렵한 모습으로 활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투수 마운드 높이 국제규격에 맞춰 10인치로

공 크기·스트라이크 존도 조정

내년 시즌 프로야구 마운드 높이와 공인구 크기, 스트라이크 존이 국제 규격에 맞춰 조정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규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내년 초 열리는 8개 구단 감독 간담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2006 도하아시아게임 때 대만과 사회인 야구 선수 주축인 일본에 무릎 꿇는 '도하 굴욕'이 전력 못지 않게 부분적으로 국제 규격의 마운드 높이와 공인구,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KBO는 지난 2000년 심각한 타고투저(打高投低) 현상이 일자 마운드 높이를 최대 13인치로 높여 투수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으나 올해는 오히려 '투고타저(投高打低)' 현상이 일었고 아시아게임과 월드컵베이스볼 클래식(WBC) 등 대부분 국제대회 규격에 따라 10인치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공인구의 크기와 중량, 반발 계수, 재질도 달라진다.

지난 3월 WBC와 지난 달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 2006 도하 아시아게임에 사용됐던 미즈노사 제품을 포함한 국제 공인구가 규정 허용치의 중간에 가까운 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은 최저치에 가깝게 만들어져 투수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98년부터 확대 적용된 스트라이크 존도 규격에 명시된 어깨와 바지의 중간선부터 무릎의 아랫 부분까지로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KBO 관계자는 "국내 공인구와 스트라이크 존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국제 규격과 차이를 보여 선수들이 적응에 문제가 있었다. 규격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일성 KBO 사무총장과 김호인 심판위원장, 김성영 기록위원장을 비롯한 규칙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내년부터

모자로고·디자인 바꾼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007년 시즌부터 모자 로고 및 디자인을 산뜻하게 바꾼다

고 22일 밝혔다. KIA는 모자 앞 부분에 적힌 영문 로고를 'K'에서 'T'로 바꾸고 색깔도 빨강에서 검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모자 챙에 검정 디자인을 넣었으며 뒷부분에는 주름밴드를 사용해 기능성을 높이고 활동적인 느낌을 더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최순호-최원우

'부자 K-리거' 탄생

최원우 신인 드래프트서 경남 입단

1980-90년대 한국축구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명성을 날린 최순호(44) 울산현대미포조선 감독의 아들 원우(18·포항제철공고 졸업예정)군이 프로축구 K-리그에 진출, 역대 세 번째 '부자(父子) K-리거'가 탄생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2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호텔에서 개최한 2007년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최원우는 올 시즌 신생팀 경남FC로부터 6순위 지명을 받아 내년부터 경남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됐다.

188cm로 좋은 체격을 지닌 최원우는 공격수인 아버지와 달리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수비수를 맡아왔고 지난 4월 춘계고교연맹전에서 수비상을 받기도 했다.

최순호 감독은 아들이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 "어릴 때부터 원우를 지켜봐 장·단점을 아는 박항서 감독이 맡고 있는 경남에 입단하게 꽤 기쁘다. 아이가 바라던 대로 프로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학교 때와 달리 훨씬 힘든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 감독은 "지난 달부터 내가 개인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소속팀에서 관리하고 나는 정신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쨌든 프로에서 자리를 잡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최원우를 뽑은 박항서 경남 감독은 "전에 포항 코치로 있을 때 지켜본 적이 있는 선수다. 당장 쓰기는 어렵지만 잠재성이 보여 하위 순위로 뽑았다"며 "신체 조건도 좋고 아버지 피를 물려받았으면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순호 감독은 1983-1991년 포항제철, 럭키금성 등에서 뛰며 K-리그 100경기에 출전해 23골과 19도움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남미 유망주 잇단 영입

스페인 프로축구(프리메리리) 호환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거액을 들여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유망주들을 잇따라 영입했다.

22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는 보카 주니어스(아르헨티나)의 스무 살 미드필더 페르난도 가고를 계약 기간 6년6개월 조건으로 데려오면서 2천700만달러(250억원)의 이적료를 지불했다.

보카 주니어스는 "레알 마드리드가 900만달러를 현찰로 지급하고 나머지 1천800만달러를 2년 안에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앞서 아르헨티나의 10대 스트라이커 곤살로 이구아인(리버 플레이트)을 1천300만달러(158억원)에 영입했다.

또 33세 왼쪽 풀백 호베르투 카를루스를 대체할 자원으로 브라질 출신 측면 수비수 마르셀루(18.플루미넨세)를 600만~900만달러 사이의 이적료를 주고 데려왔다.



누가 막으랴

22일 미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NHL 아이스 하키 버팔로와 내슈빌의 경기. 1피리어드에서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레프트 윙 마틴 에렛이 버팔로 사브러스의 골리 마틴 바이런의 가랑이 사이로 퍽을 날리며 득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3일(토)

- ▲NBA(LA레이커스-뉴저지)(10:00·MBC ESPN)
- ▲한국 배드민턴 최강전(11:50·SBS스포츠)
- ▲프로농구(KTF-동부)(14:50·Xports), (SK-KT&G)(14:50·SBS스포츠)
- ▲V-리그(LIG-대한항공)(13:30·KB-

- SN Sports), <도로공사-GS칼텍스>(16:00·KBSN Sports)
- ▲대학장사씨름 3차대회 역사급(18:00·MBC ESPN)
- ▲이탈리아 세리에 A축구(인테르밀란-아탈란타)(23:00·KBSN Sports)

24일(일)

- ▲르상피오나(올림피크 리옹-AS모나코)(00:00·SBS스포츠)
-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아스톤빌라-맨체스터Utd)(00:00·MBC ESPN)

- ▲NFL(오를랜드-캔자스시티)(09:50·SBS스포츠), ▲프로농구(전자랜드-SK)(14:50·Xports), <KT&G-KTF>(14:50·SBS스포츠), (LG-KCC)(16:50·Xports), <오리온스-삼성>(17:00·Xports)
- ▲V리그(삼성-현대)(15:05·KBS1), <한국생명-KT&G>(17:00·KBSN Sports)
- ▲대학장사씨름 3차대회 장사급(18:00·MBC ESPN)
- ▲에라디비지에(비테세-아약스)(19:20·SBS스포츠)

프리미어리그 3총사 오늘밤 동시 출격할 듯

잉글랜드 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 3인방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설기현(27·레딩FC), 이영표(29·토트넘)가 성탄을 앞두고 '동시 출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삼총사가 소속된 세 팀의 2006-2007 시즌 19차전이 나란히 23일 자정(한국시간)으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박지성은 빌라파에서 열리는 아스톤빌라와 원정 경기에서 부상 이후 본격 복귀전을 갖는다.

지난 18일 웨스트햄전에서 99일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고작 6분밖에 뛰지 못해 스카이스포츠의 평가처럼 '뭘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박지성은 지난 9월10일 토트넘전에서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고 석 달여 재활훈련을 해왔다.

선발 출전을 장담할 수 없지만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라이언 깁스 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대체 요원으로 박지성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두 맨유는 웨스트햄전에서 12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하고 바이에른 패배를 당해 2위 켈시에 바짝 쫓기고 있다. 설기현은 마데스키 홈구장에서 에버턴과 격돌한다.

피로가 누적돼 있고 발가락, 무릎 등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갈 길 바쁜 레딩도 설기현에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레딩은 4연승을 달리고 최근 1무2패로 다시 주춤한 상태라 설기현의 4호골이 절실하다.

설기현은 케빈 도일과 투톱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뉴캐슬과 원정 경기에 나선다.

이영표는 지난 21일 사우스엔드와 칼링엄 8강전에 결장했다. 왼쪽 풀백으로 베누아 이슈 에코토가 출전해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볼과 사울 만에 다시 경기를 하는 만큼 이번에는 이영표에게 출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7위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컵, 칼링컵을 포함해 5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